



▼8일 새벽 카타르 도하 하마드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수영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태환 선수가 환호하고 있다.

## 24년만에 쾌거…이젠 세계를 향하여

승마 김형칠(47)의 낙마 사망 사고로 한국선수단이 침통한 분위기에 빠진 가운데서도 '마린보이' 박태환(경기고)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했다.

박태환은 8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카타르 도하 하마드 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수영 남자 자유형 1500m 결선에서 14분55초03에 물살을 갈아 아시아 신기록과 함께 또 하나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환의 아날 기록은 장린(중국)이 지난해 11월 마카오에서 열린 동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아시아신기록 15분00초27을 5.24초나 앞당긴 것이다.

지난 4일 자유형 200m와 6일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던 박태환은 이로써 1982년 뉴델리 대회 때 최윤희 이후 24년 만에 수영 3관왕에 오르며 한국 수영의

1,500m 14분55초03…아시아新

400m 혼계영에서 동메달 추가

혼자서 금3 은1 동3…최고 성적

로네상스를 활짝 열었다.

박태환은 또 자유형 100m 은메달과 계영 800m와 400m, 혼계영 400m에서 동메달 3개까지 보태 총 7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명실상부한 아시아 자유형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경기 첫날을 맞은 태권도는 이용열이 남자 라이트급(72kg급) 결승에서 중국의 왕하오를 맞아 2라운드만에 7-0 RSC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구기종목의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한국 탁구는 이정우(농심삼다수)-이은희(단양군청) 조가 출전 혼합복식 결승에서 마지막 금빛 소식을 기대했지만 중국의 마린-왕난 조의 벽에 막혀 2-4(5-11 10-12 11-8 17-19 11-8 8-11)로 져 아쉬운 은메달에 그쳤다. 한국탁구는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로 대회를 마감했다.

남자농구도 조별리그에서 요르단에 62-68로 무너지며 E조 하위권으로 내려 앉아 메달권 진입도 어려워졌다.

한국은 10일 오전 1시에 열리는 훈팀 카타르전에서 이기지 못하면 8강에 진출하더라도 아시아 최강 중국과 만나게 된다.

복싱에서는 믿었던 이용성(61kg급·보은군청)이 준준결승에서 탈락한 가운데 64kg급의 신명훈(상무)이 4강에 올라 동메달을 확보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태환 선수가 수영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역영하고 있다.

## 이용열 태권도서 빛나는 첫 금

男 라이트급…中 왕하오에 RSC 승



이용열(21·용인대)이 2006 도하아시안게임 태권도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이용열은 8일 오전 카타르 도하 스포츠클럽 실내홀에서 열린 태권도 첫날 남자 라이트급(72kg급) 결승에서 중국의 왕하오를 맞아 7-0 RSC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열린 4체급 중 남녀 라이트급 2체급에만 출전한 한국 태권도는 이용열이 정상에 우뚝 서며 '금메달'의 시작을 알렸다.

2005 동아시아경기대회 1위 이용열은 1라운드부터 적극적인 공격으로 착실히 득점을 쌓아가며 3-0으로 앞서 승기를 잡았다.

2라운드에서는 민회를 노리며 서두른 왕하오의 선제 공격을 되받아차며 추가 득점을 올리는 노력한 경기 운영을 하다 결국 종료 6초를 남겨 놓고 7점차 RSC승을 올렸다.

이용열은 이날 준결승에서 2004 아테네올



이용열(오른쪽)이 8일 카타르 도하 스포츠클럽 실내홀에서 열린 태권도 첫날 남자 라이트급 결승에서 중국의 왕하오를 맞아 밸치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립피 금메달리스트인 '한국 킬러' 사이에 보네코할 하디(이란)를 3-1로 꺾으며 일찌감치 금메달을 예약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 여자축구, 北에 완패

내일 밤 10시 日과 결승행 다툼



한국 여자축구가 4년만에 펼쳐진 아시안게임 남북자매대결에서 완패했다.

안종관 감독이 이끄는 한국여자대표팀은 8일 오전 카타르 도하 알 리안 경기장에서

이어 열린 A조 경기에서 일본은 이와시미즈의 결승골로 중국을 1-0으로 꺾었다.

이로써 여자축구 4강은 10일 밤 10시 한국-일본, 11일 오전 1시 북한-중국의 대결로 압축됐다.

한국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남북대결에서 당한 0-2 패배를 설욕하지 못한 채 역대 전적에서 1승1무6패로 밀렸다.

한국은 주전을 모두 기용하진 않았지만 스피드와 체력, 슈팅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절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 오늘의 주요 경기

### ▲양궁

△남녀 예선라운드(15시)

### ▲육상

△여자 마라톤 등(15시)

### ▲배드민턴

△남녀 단복식 결승(22시)

### ▲농구

△여자 대 태국 전(17시15분) △남자 대 카타르 전(10일 01시30분)

### ▲보디빌딩

△80kg급 등(16시)

### ▲볼링

△남녀 마스터즈(15시)

### ▲복싱

△60kg급 8강전 등(20시)

### ▲당구

△여자 8볼 준결승 등(16시)

### ▲사이클

△여자 500m 독주 결승 등(18시30분)

###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 예선 등(15시)

### ▲축구

△남자 8강전 한국-북한(10일 01시)

### ▲골프

△남녀 개인-단체 2라운드(13시)

### ▲리듬체조

△여자단체 결승 및 개인종합 예선(19시)

### ▲핸드볼

△여자 대 태국 전(16시) △남자 대 쿠웨이트 전(20시)

### ▲하키

△여자 대 말레이시아 전(10일 0시)

### ▲요트

△남녀 420급 8차 레이스(17시)

###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단체 결승 등(16시)

### ▲태권도

△남자 62kg급 등(20시)

###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60kg급 등(15시)



8일 서울 태릉선수촌에 차려진 고 김형칠 선수의 임시 분향소를 방문한 김명곤 문화부 장관이 체육훈장 맹호장을 추서하고 있다.

## ‘하늘에서 땐 금메달’

AG조직위 ‘낙마 사망’ 김형칠 선수에 ‘명예 금’

정부, 체육훈장 맹호장 추서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승마 종합마술 경기 도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김형칠 선수의 유족 대표인 동생 재철 씨가 8일 오전 카타르 도하에 도착, 오열한 가운데 선수촌내의 분향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한국정부는 체육훈장 맹호장을 추서 했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명예 금메달’을 현정했으며 장례는 대한올림픽 위원회장으로 치러진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도하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DAGOC)가 7일 밤 카타르 도하 선수촌 내 국기광장 옆 퍼블릭 존에 설치한 임시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